

# 랜선 play!

-김승희-

금요일 저녁에 나와, 서연, 수연, 나윤이는 같이 wave라는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영상동화로 재미있게 놀았다. 우리는 wave를 8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했다.  
그리고 8시가 도와 다같이 wave에 들어가서 wave를 했다. 되게 기대됐다. ㅎㅎ  
wave에는 폭탄 던지기, 마피아, 9번 이발하기 등등이 있다. 일단 가장 먼저  
손가락 집기 게임을 했다. 일단 우리는 벌칙 물건을 돌렸다. '일사불입' 그라기였다.  
벌칙 쿨렛도 다 돌리고 나는 나윤이를 공격했다. "안경 쓴 사람 잡어"라고 해서  
나윤이가 잡혔다. 그리고 강와기 나윤이가 자기가 다쳤다고 밴드를 붙이던 그 때  
수연이가 "지금 밴드 붙이는 사람 잡어"라고 해서 나윤이가 또 잡혔다. 너무 웃겼다. 그리고  
20분 후? 게임이 끝이 났다. 끝등은 강, 나, 윤! 나윤이가 원자탄을  
그려야했어ㅋㅋㅋ 그리고 서연이가 들어왔다. 서연이가 들어오고 마피아를 했다.  
첫 폭탄은 난 의사였다. 내가 시민이라고 말하자 마피아는 4를 죽였다.  
다행히 내가 의사여서 나는 나를 살렸다. 그리고 마피아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나윤이를 찾아서 나윤이를 죽였다. 나윤이는 마피아가  
\* 아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ㅋㅋ 나는 호르몬관이 큰 장으로 웃었다. 그후 우리는  
카드게임, 두더지 잡기, 폭탄 돌리기 등 많은 게임을 했다. 진짜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또 하고싶다!